2024 년 6 월 4 일

KIWOOM Daily

■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**Strategist 한지영** hedge0301@kiwoom.com
Market 김지현 jeehyun12@kiwoom.com



미 증시, 제조업지수 부진, 경기둔화 우려에 혼조세

미국 증시 리뷰

3 일(월) 미국 증시는 2 분기 GDP 전망치 하향조정, ISM 제조업 지수 부진으로 경기둔화 우려 유입되며 하락 출발했으나, 장후반 금리인하 기대감 우위, 엔비디아발 호재에 상승 전환 마감. (다우 -0.3%, S&P500 +0.11%, 나스닥 +0.56%). 업종별로 IT(+1%), 헬스케어(+0.7%), 통신(+0.5%) 강세, 에너지(-2.6%), 유틸리티(-1.3%), 산업재(-1.2%) 약세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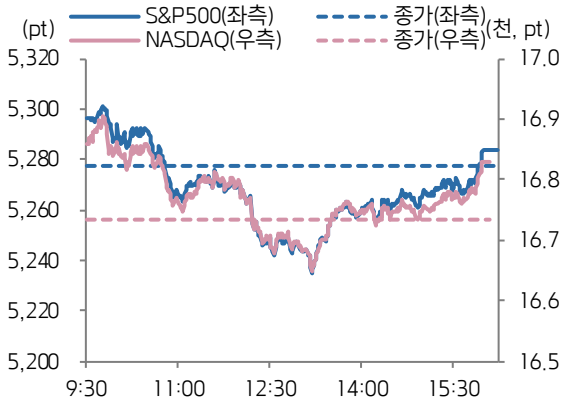
미국 5 월 ISM 제조업지수 48.7(예상 49.8, 전월 48.7) 기록하며 예상치 하회, 2 개월 연속 50 하회. 신규주문 45.4(예상 49.4), 고용지수 51.1(예상 48.5), 물가지수 57.0(예상 60.0) 모두 부진. 집계측은 "통화정책과 기타 상황으로 기업들이 주문, 자본지출 등 투자를 꺼리는 모습을 보여 수요 파악이 여전히 어렵다" 고 언급. 애틀랜타 연은 GDP 나우 모델로 예측한 올해 2 분기 GDP 성장률 추정치는 지난주 2.7%에서 1.8%로 하향조정. 최근 지표 발표에서 2 분기 실질 개인소비지출 증가율 2.6%에서 1.8%, 민간 고정투자 증가율 3.1% 에서 1.5%로 큰폭 하향 조정된 것에 기인.

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올해 중국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.0%에서 4.5%로 상향 조정. "중국의 1 분기 경제성장은 무역과 제조업 활동에 힘입어 호조를 보였고, 재정정책이 제조업 활동을 뒷받침했다고 설명.

엔비디아(4.9%), AMD(-2.01%)는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테크 엑스포 '컴퓨텍스 2024' 개막을 전후로 새로운 칩을 공개. 엔비디아 젠슨 황 CEO 는 올해말 출시될 블랙웰에 이어 2025 년에는 블랙웰 울트라, 2026 년에 양산할 예정인 차세대 AI 그래픽 처리장치(GPU) '루빈'을 공개. 지금까지 2 년 주기로 새로운 아키텍처를 도입했으나 금번 신제품 출시는 기존의 2 년에서 1 년으로 단축한다고 언급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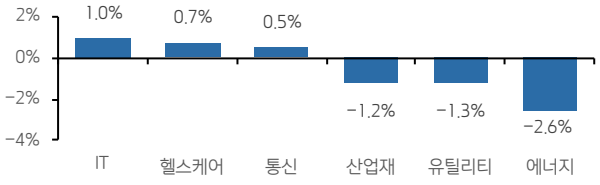
AMD 리사 수 CEO 는 최신 첨단 가속기 '인스팅트 MI325X'를 연내 출시할 계획으로, 첨단 데이터센터부터 노트북까지 대부분의 기기에 탑재할 수 있다고 발표. 곧 출시될 인텔의 루나 레이크 및 퀄컴의 스냅드래곤 X 와 직접 경쟁할 것으로 예상되며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해 AI 챗봇 코파일럿이 장착된 노트북을 구동할 것으로 전망. 엔비디아와 AMD 에 칩을 공급하는 TSMC(2.4%)강세, 마이크론(2.5%) 루빈 신규칩에 HBM 12 개 탑재소식에 강세.

S&P500 & NASDAQ 일중 차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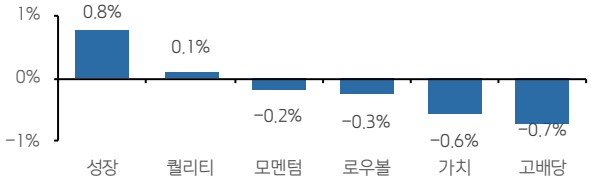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



스타일별 주가 등락률
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주요 지수

주식시장			외환시장		
지수	**가격**	**변화**	**지수**	**가격**	**변화**
코스피	2,682.52	+1.74%	USD/KRW	1,375.99	-0.69%
코스피 200	365.48	+2.03%	달러 지수	104.14	-0.51%
코스닥	844.72	+0.56%	EUR/USD	1.09	+0.04%
코스닥 150	1,342.24	+0.28%	USD/CNH	7.25	+0%
S&P500	5,283.40	+0.11%	USD/JPY	156.13	+0.03%
NASDAQ	16,828.67	+0.56%	**채권시장**		
다우	38,571.03	-0.3%	국고채 3 년	3.432	-2bp
VIX	13.11	+1.47%	국고채 10 년	3.537	-4.3bp
러셀 2000	2,059.68	-0.5%	미국 국채 2 년	4.808	-6.5bp
필라. 반도체	5,152.51	+0.57%	미국 국채 10 년	4.388	-11bp
다우 운송	15,074.49	-1.07%	미국 국채 30 년	4.538	-11bp
유럽, ETFs			**원자재 시장**		
Eurostoxx50	5,003.54	+0.4%	WTI	74.09	-0.18%
MSCI 전세계 지수	788.77	+0.41%	브렌트유	78.36	-3.99%
MSCI DM 지수	3,453.44	+0.24%	금	2371.1	+0.08%
MSCI EM 지수	1,069.31	+1.94%	은	30.86	+0.23%
MSCI 한국 ETF	63.21	+1.66%	구리	468	+0.27%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, 한국 오전 6 시 30 분 기준

check

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

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	MSCI 한국 지수 ETF 는 +1.66% 상승, MSCI 신흥국 ETF 는 +1.05% 상승. 유렉스 야간선물은 0.49% 하락. NDF 달러/원 환율 1 개월물은 1369.37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, 달러/원 환율은 7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.
주요 체크 사항	1. 전일 급등 이후 업종간 차별화 진행 가능성 2. 5 월 중 이탈했던 외국인 순매수 재개 여부 3. 정유주들의 장중 수급 변동성 확대 가능성

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

5 월 FOMC, 4 월 CPI 를 중립 이상으로 소화했음에도, 주요국 증시는 5 월 중순을 기점으로 상승 모멘텀이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었음(한국은 하락). 이는 미국의 견조한 경기 전망 속에 연준의 연내 1 회 금리인하 가능성이 우세해졌으며, 그 과정에서 10 년물 금리가 4.6%대를 돌파했던 부담에서 주로 기인.

하지만 전일 5 월 ISM 제조업 PMI(48.7 vs 컨센 49.8, 4 월 49.1)가 신규주문(45.4, 컨센 49.4) 부진 등으로 예상보다 위축되면서 10 년물 금리가 4.3%대로 내려가는 등 금리 부담이 완화되고 있는 모습.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 경제의 선행지표인 ISM 제조업 PMI 가 둔화되고 있다는 점이 걱정거리가 될 수는 있음. 미국의 실물 소비 및 기업 이익 전망 뿐만 아니라 5 월에 잘 나왔던 한국의 수출 전망을 악화시킬 소지가 있기 때문(Bad news is bad news)

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최근 GDP, ISM 등 일련의 경제 지표 부진은 "경기 노랜딩이라는 기대감"에서 "랜딩(당사 전망으로는 소프트 랜딩이 유력)이라는 현실"로 돌아오게 만드는 재료라는 점임(Bad news is good news). CPI 에 영향을 미치는 ISM 제조업 PMI 내 가격지수(57.0, 컨센 60.0)가 둔화되고 있다는 점도 미루어 보아, 5 월 CPI 포함 2 분기 이후 인플레이션은 하락 경로로 복귀하면서 연준의 2 회 인하 전망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기존 당사 전망을 유지

전일 국내 증시는 지난주 낙폭 과대 인식 속 5 월 수출 호조에 따른 반도체, 자동차 등 수출주 강세, 포항 앞바다 유전 발견 소식에 따른 석유주 폭등 영향 등으로 상승 마감(코스피 +1.7%, 코스닥 +0.6%)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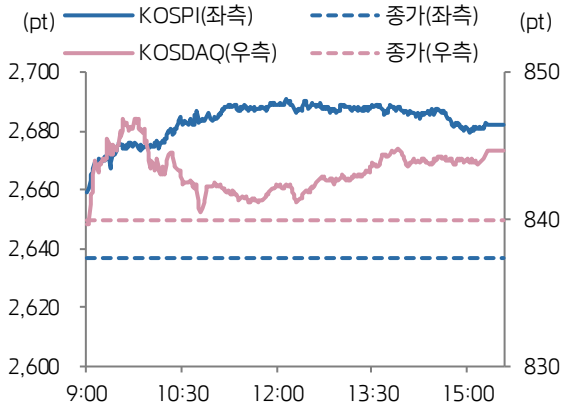
금일에는 미국 ISM 지표 부진에 따른 금리 하락 vs 경기 불안 노이즈 등 미국발 상하방 요인이 혼재됨에 따라, AI, 성장주 vs r 경기 민감주 간 차별화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. 또 산유국 감산 축소, 수요 부진 우려 등으로 WTI 국제 유가(-3.9%)가 급락했다는 점은 국내 정유주들의 하방 요인이 될 수 있기는 함. 다만, 이들은 정부가 언급한 유전 테마주로 묶인 상태이기에, 금일에도 장중 등락을 반복하며 수급 변동성이 큰 폭 증가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.

한편, 전일 코스피 급등은 일본, 홍콩 등 아시아 증시 강세 영향도 있겠지만, 5 월 중 한국 증시의 소외 현상이 과도했다는 인식이 누적된 가운데, 5 월 수출 호조 등이 이를 해소하는 촉매 역할을 제공했던 것으로 판단(5 월 코스피 -2.1% vs S&P500 +4.8%, 나스닥 +6.9%, 닛케이 +0.2%, 대만 가권 +3.8%, 독일 +3.2%).

물론 지난 1 일 발표된 한국의 5 월 수출은 +11.7%(YoY)로 전월(+13.8%)이나 컨센(+15.2%)에 못 미치는 수치를 기록한 것은 사실. 하지만 조업일수를 감안한 일평균 수출은 오히려 증가폭을 확대했다는 점(4 월 +24.5% -> 5 월 +26.4%)이나 코스피 이익에 선행하는 하는 무역수지도 12 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는 점을 시장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판단. 반도체(+54.5%), 자동차(+4.8%), 바이오헬스(+18.7%) 등 주력 품목이 전방 수요 확대, 환율 효과, 해외 점유율 확대 등으로 호조세를 보였으며, 중국(+7.6%), 미국(+15.6%) 등 G2 향 수출도 견조하게 발표되는 등 세부 내용상 나쁘지 않았다는 점도 마찬가지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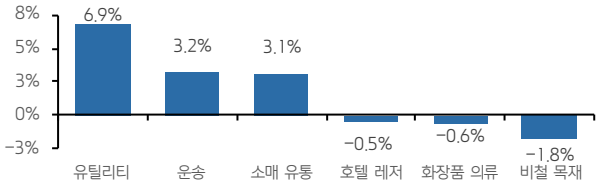
5 월 내내 266 조원대에서 정체됐던 코스피의 '24 년 영업이익 전망이 5 월 마지막주를 기점으로 268 조원대로 약 2 조원 상향됐다는 점도 눈에 띄는 부분(반도체 +0.8 조원, 보험 +0.2 조원, 건강관리 +0.2 조원, 자동차 +0.2 조원 등). 더 나아가 이번 수출 결과를 반영해 반도체, 자동차, 바이오 등 주력 품목들을 중심으로 코스피의 '24 년 이익 전망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 보임. 결국 코스피 이익 전망 개선은 주중 굵직한 매크로 이벤트가 만들어내는 변동성 장세에서 여타 증시에 비해 하방 지지력을 부여해줄 것으로 예상.

KOSPI & KOSDAQ 일중 차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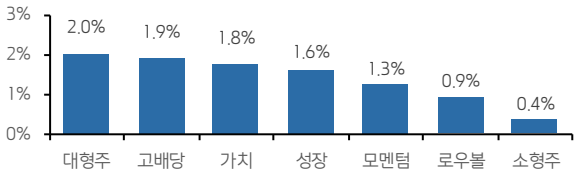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



스타일별 주가 등락률
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Compliance Notice

-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 -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고지사항

-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,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 -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, 유가증권의 종류, 종목,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. -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, 복제, 전시, 배포, 전송, 편집, 번역,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·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.